

장·단기 투자통상 목표수립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 충남의 2010년 수출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상품의 수출호조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충남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은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전망
- 충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되며 2012년까지 23% 성장 후 10%대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는 2009년 9월 현재 15.4억불로 이미 2009년 목표치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5억불까지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
- 충남의 기업유치는 2009년 9월말 현재 민선4기 목표의 273%를 달성 하였으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과 투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 따라서 유치기업의 수보다 먼저 유치기업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목표설정은 정책을 이끄는 등대이며 목표가 없다면 투자통상정책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음
- 충청남도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통상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와 민간교류 확대 및 대백제전 성공지원·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 등을 통해 2010년 외자유치 15억불, 기업유치 500개, 수출 420억불, 농수산물 수출 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변화하는 국제투자 환경질서에 순조롭게 부응하는 새로운 투자통상방향과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실정

<표 1> 2010년 충남투자통상 목표

외 자 유 치	15억\$
기 업 유 치	500개
수 출	420억\$
농수산물 수출	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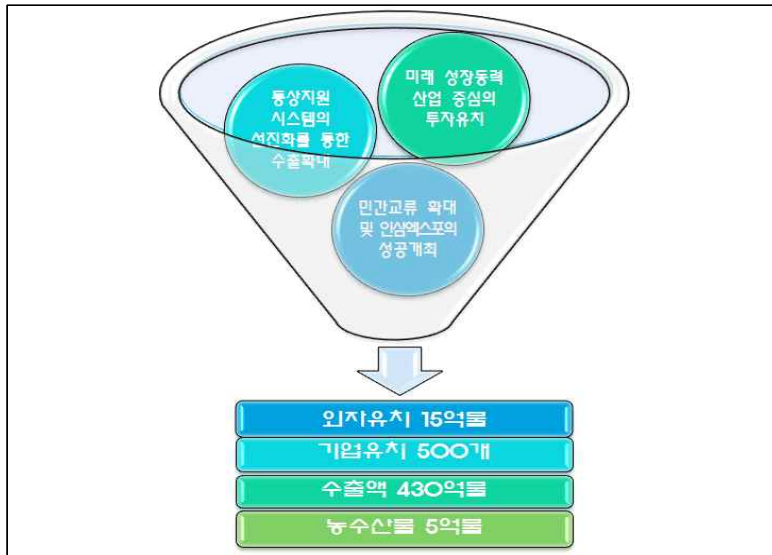


- ①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 ② 통상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
- ③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와 민간교류 확대
- ④ 대백제전 성공지원·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 기반 조성

- 본 연구는 “투자통상분야의 장단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위한 1차 연구로써 우선 세계 경제지표,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0년 충남 투자통상의 목표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통상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와 더불어 국제협력, 통상지원, 투자유치의 3개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통상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것임

<그림 2> 2010년 충남투자통상 목표



◆ 실물경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시현

- 국내경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
 -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2.6%를 기록하면서, 1/4분기(0.1%)보다 성장세가 크게 확대
- 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도 완화
 - 소비자심리지수⁴⁾(8월, 114)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제조업업황지수⁵⁾(8월, 86)도 6개월 연속 개선

◆ 그러나 경제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

- 실물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불안, 수출감소 등 불안 요인도 상존
 -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폭은 6월 이후 크게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수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 완화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급격히 감소

2.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2.3%의 완만한 성장 예상

-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2010년에도 지속
 - 4)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형편이나 경기, 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
 - 5) 100은 미래경기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임을 말하며, 100 이상은 경기상승, 100 이하는 경기하강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의미

II. 국내외 경제현황³⁾

1. 국내경제 흐름

3)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요약 및 발췌

- 경기부양책의 국제공조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 2009년 재정확대 기조가 2010년에도 유지됨에 따라 성장모멘텀이 어느 정도 유지될 전망
-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4%대 후반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경제 및 세계교역 회복에 기여

- 하지만 경제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 민간부문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서 성장 동력이 취약
 - 잠재적인 불안요인도 본격적인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세계교역도 회복세는 보이나 2009년 감소폭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전망
- 출구전략⁶⁾이 다시 경기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조기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나 경제 정상화에는 걸림돌로 작용

◆ 그러나 2010년 선진국은 1% 내외의 저조한 성장 예상

<표 2>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8	2009	2010
세계(시장가격 기준)	2.2	-1.9	2.3
선진국	0.7	-3.3	1.2
신흥국/개도국	5.6	1.0	4.9

자료: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원)

- 미국은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느린 회복으로 인해 2010년에도 성장세는 저조할 전망

6)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

- 유로지역 역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회복에 힘입어 1% 내외 성장
- 일본도 주로 수출에 의존하여 1% 미만의 미약한 성장이 예상

◆ BRICs⁷⁾는 7.4%의 고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중국은 경기부양책 지속과 수출호전으로 2010년 9.8%의 고성장이 예상
- BRICs 국가도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나 러시아는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 인도는 농업부문과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의 회복 등에 힘입어 7%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망
 - 브라질은 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원가격 상승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러시아는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3. 국내경제 전망

◆ 2009년 2/4분기 이후 경기는 가파른 상승세로 2010년 경제성장률은 3.9%에 도달

- 2009년 1/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견고한 상승세를 시현
- 한국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 3.9%에 도달
 -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플러스 성장,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만 달러대에 재진입

<표 3> 경제성장률 예측 (전년동기 대비)

	2009							2010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4.2	-2.2	-3.2	-1.4	4.3	1.4	-0.8	3.9

7)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경제 4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자료: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원)

◆ 2010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

-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출이 12.2%의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
 - 2009년 하반기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로 인해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22.7%에서 하반기에는 -8.6%로 감소세가 둔화
- 심리 회복과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내수는 증가세로 전환
 - 2010년에는 일자리 확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내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 -0.3%(2009) → 3.1%(2010년)

-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9년 중 전년대비 0.3% 감소할 전망
- 2010년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나 가계부채의 증가, 이자율 상승은 위험요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⁸⁾: -12.3%(2009년) → 8.2%(2010년)

- 201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8.2% 증가할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수요 증가로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 활동이 재개
 -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는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 2.8%(2009년) → 1.9%(2010년)

- 2010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폭 축소 가능성,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1.9% 증가에 그칠 전망
 - 정부의 SOC 투자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지속되겠지만 전년과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민간투자는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주거요, 비주거용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개선되겠으나 미분양 주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소비자물가: 2.8%(2009년) → 3.0%(2010년)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측면보다는 비용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전년대비 3.0%의 상승세가 예상

◆ 실업률: 3.7%(2009년) → 3.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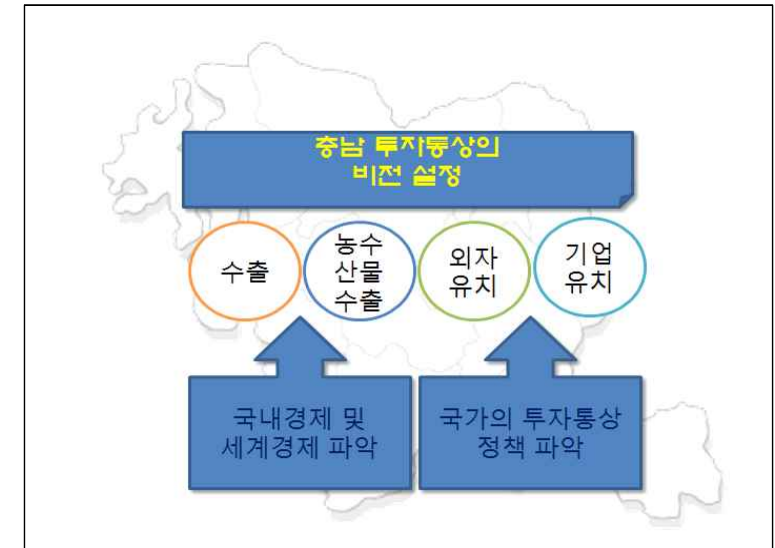
-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실업률은 3.5%로 소폭 하락하고 일자리 창출폭은 15~2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과 기업들의 고용량 유지노력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상황

8) 설비투자는 건물·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설비에 새로 투자되는 증가분

III. 연구방법

- 충남의 경제현상을 일일이 분석하여 충남 투자통상의 목표를 제사하는 것은 시간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우리나라 수출입의 향후 전망과 부처별 투자통상정책의 장기목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충남의 투자통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 우선 부문별 국가 투자통상의 전망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부응하는 충남 투자통상의 비전을 설정

<그림 3> 연구방법



IV. 충남의 투자통상 목표설정

1. 수출

1) 국내 수출전망

-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9년에는 각각 15.7%와 14.8%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2010년은 각각 12.2%와 15.0%의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표 4>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율 전망

(단위: %)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삼성경제	수출증가율	-22.7	-8.6	-15.7	12.2

연구소 전망	수입증가율	-34.5	-16.0	-25.4	17.8
LG경제	수출증가율	-22.7	-6.6	-14.8	15.0
연구소 전망	수입증가율	-34.5	-17.8	-26.3	23.7

- 삼성경제 연구소의 예측에 의하면 선박 수출 호조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가격 상승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2010년 수출은 3,990억불에 달할 전망

<표 5> 국내 수출입 예측 (단위: 억불, %)

	2009							2010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수 출	744	911	1,655	936	965	1,901	3,556	3,990
수 입	714	734	1,447	862	939	1,801	3,248	3,828

자료: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삼성경제연구원) 재편집

-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수출증가에 힘입어 2010년 수출은 3,828억 불로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축소시킬 전망
- 2010년 무역수지는 수출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흑자규모가 2009년의 308억불에서 162억불로 축소

2) 충남 수출전망

◆ 충남은 수출 406억불 ~ 421억불 달성이 예상되며 260억불 ~ 270억불의 수입이 예상

- 국내 수출전망을 통해 2008년 충남의 수출입액을 기준으로 충남의 수출입 전망을 예측해보면 2010년 충남의 수출은 406억불 ~ 421억불 달성이 예상되며 260억불 ~ 270억불의 수입이 예상되어 15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표 6> 충남 수출입 전망 (단위: 천불)

		2008	2009(예측)	2010(예측)
삼성경제 연구소 전망	수출	42,936,207	36,195,223	40,611,040
	수입	29,556,113	22,048,860	25,973,557
	무역수지	13,380,094	14,146,362	14,637,482
LG경제 연구소 전망	수출	42,936,207	36,581,648	42,068,896
	수입	29,556,113	21,782,855	26,945,392
	무역수지	13,380,094	14,798,793	15,123,504

자료: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 호조로 2010년 수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충남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증가

-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기(8.3%), 가전(8.3%), 반도체(11.1%), 디스플레이(21%), 자동차(5.5%), 석유화학(8.4%)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그중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는 공급능력 증가세 둔화, 수요 회복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국내업체의 원가 및 제품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디스플레이는 안정된 거래 선을 바탕으로 국내업체의 생산 및 수출이 급속히 증가
 - 석유화학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수익성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
 - 자동차는 특소세 감면, 노후차 세제혜택 종료로 내수는 정체되는 반면, 신차투입과 국산차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 충남의 수출 1위와 2위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이며 전국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2%, 35.1%로 매우 높아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표 7> 충남 10대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순위	품목명	2009.1~6월		우리 道 수출비중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액	증감율		
계		16,560	△24.0	100%	-
1	평판디스플레이	6,203	12.5	37.4	58.2
2	반도체	4,171	△28.5	25.1	35.1
3	석유제품	892	△47.1	5.4	9.4
4	합성수지	707	2.2	4.2	11.6
5	컴퓨터	674	△51.0	4.0	18.8
6	석유화학중간원료	559	△30.7	3.3	30.3
7	철강판	461	△53.0	2.7	8.5
8	자동차부품	332	△45.3	2.0	7.1
9	플라스틱제품	253	△0.4	1.5	12.3
10	자동차	156	△80.1	0.9	1.4

주: 품목기준은 MTI 3단위, 실적순위는 6월 누계기준임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 충남 제1의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회복

- 충남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홍콩, 미국, 멕시코, 일본 순이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6%로 매우 높아 중국의 경제회복이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표 8> 충남 10대 수출국 (단위 : 백만\$, 전년동기대비%)

순위	국 가 명	2009.1~6월		우리 道 수출비중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액	증감율		
계		16,560	△24.0	100%	-
1	중국	6,397	3.6	38.6	17.0
2	홍콩	1,450	△15.0	8.7	16.8
3	미국	1,308	△42.4	7.8	7.3
4	멕시코	1,242	△24.8	7.5	38.0
5	일본	1,122	△43.4	6.7	11.4
6	슬로바키아	972	25.3	5.8	66.8
7	대만	661	△42.6	3.9	16.7
8	독일	432	△45.5	2.6	11.0
9	말레이시아	401	△18.8	2.4	22.2
10	싱가포르	351	△41.5	2.1	5.1

주: 품목기준은 MTI 3단위, 실적순위는 6월 누계기준임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 중국경기가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2010년에는 경기부양책 지속과 수출호전으로 9.8%의 고성장 예상
 - 중국경제는 2009년 1/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
 -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중국경제의 회복을 견인
 - 2010년에는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9.8%로 상승할 전망

□ 미국과 일본의 저성장 기조는 충남수출의 증가 저해요인

- 미국의 경우 경기지표 급락세가 완화되며 회복 조짐이 보이거나 2010년에도 경제성장세는 저조
 -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
 - 산업생산지표가 개선되고 고용감소세도 완화되는 조짐
 -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은 느린 속도로 진행될 전망
 - 2010년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부진

을 보완하면서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견인

- 일본의 경우 2/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가 예상되나 2010년에도 1% 미만의 미약한 성장
 - 일본경제가 2009년 2/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는 모습
 - 수출은 세계경제의 플러스 전환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나 회복력은 미약
 - 수출회복도 설비투자 회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대기업 수출비중 높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충남 평균 대기업 수출비중은 87.1%(중소기업 12.9%)로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대기업 수출부진은 충남의 수출부진으로 직결됨
 - ※ 전국 평균 대기업 수출비중 : 69.1% (중소기업 30.9%)
- 따라서 수출액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3) 충남의 수출 2020 비전9)

- 산업연구원의 수출전망에 따르면 총교역액 규모는 경상 달러 기준으로 기준성장 시나리오하에서 2004년 약 5,7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약 9,500억 달러, 2020년에는 약 1조 7,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고성장 시나리오하에서는 수출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약 1조 달러, 2020년에는 약 1조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교역규모 기준으로 2020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여겨짐

9) “한국산업 2020”(산업연구원)에서 요약 및 발췌

<표 9> 우리나라 수출전망 (단위: 경상 억불)

	2000	2004	2010	2015	2020
기준성장	2,089	2,999	4,873	6,647	8,412
고성장	2,089	2,999	5,015	7,232	9,730
저성장	2,089	2,999	4,498	5,584	6,954

자료: “한국산업 2020”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고성장화하면 2020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며 저성장화한다면 연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준성장하에서 충남은 2015년경 560억불, 2020년경 750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에서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930억불 수출당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표 10> 충남의 수출 예상 (단위: 천불)

년도	12%성장	고성장(7%)	기준성장(6%)	저성장(4%)
2010	42,068,896	42,068,896	42,068,896	42,068,896
2011	47,117,164	45,013,719	44,593,030	43,751,652
2012	52,771,223	48,311,920	47,268,612	45,501,718
2013	59,103,770	52,005,906	50,104,728	47,321,787
2014	66,196,222	56,143,170	53,111,012	49,214,658
2015	74,139,769	60,776,905	56,297,673	51,183,244
2016	83,036,541	65,966,689	59,675,533	53,230,574
2017	93,000,926	71,779,247	63,256,065	55,359,797
2018	104,161,037	78,289,312	67,051,429	57,574,189
2019	116,660,362	85,580,584	71,074,515	59,877,157
2020	130,659,605	93,746,810	75,338,985	62,27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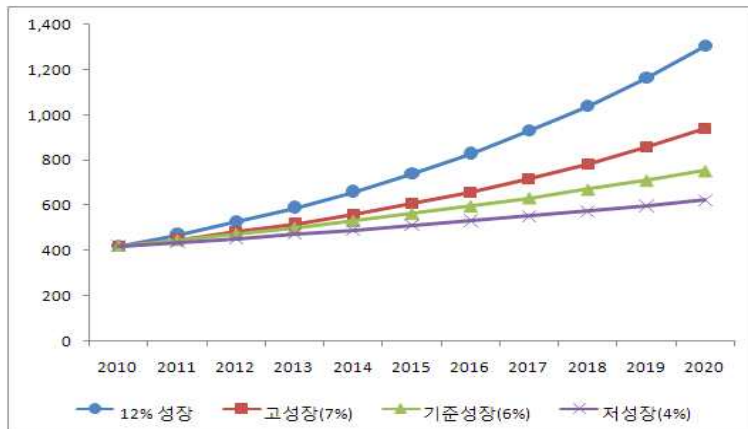
주: 세계 경기 위축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성장에 맞춘 전망치

◇ 충남은 2000년~200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2%를 유지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경제성장을 둔화와 세계시장에서 신흥개도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2008)”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경제성장을 둔화와 세계시장에서 신흥개도국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2020년까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충남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전자 등은 세계시장에서 기술, 가격, 브랜드 인지도 면에 있어 당분간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충남의 수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

<그림 4> 충남의 수출 예상 (단위: 억불)



◇ 충남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은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전망

<그림 5> 충남의 2020 수출 비전



2. 농식품(농림수산물) 수출¹⁰⁾

1) 국내 농식품 수출

◇ 세계 농식품 교역규모 증가로 농식품 수출의 기회요인 증가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FTA 체결 확산 등으로 식품 교역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계청은 2015년에 세계 인구가 약 7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농식품 수출의 기회요인 증가

가. 국내 농식품 수출 현황

10) “2009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농촌경제연구원)과 “2009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췌 및 요약

◇ 2009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53억불 달성이 예상

<표 1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현황

① 신선농식품: 전년과 동일한 수준(0.1%)인 309백만불 (증가) 감치(4.9%), 딸기(68.6), 장미(51.3), 돼지고기(22.5), 팽이버섯(240.4) (감소) 파프리카(-8.7%), 배(-28.6), 유자차(-10.5), 양란(-56.5), 국화(-1.6)
② 가공농식품: 전년대비 -0.3% 감소한 1,215백만불 (증가) 커피조제품(0.7), 자당(1.8) (감소) 권련(-3.3), 라면(-2.7), 소주(-6.8)
③ 수산식품: 전년대비 -2.2% 감소한 771백만불 (증가) 고등어(441.9), 전복(71.7), 김(7.8), 바지락(101.8) (감소) 참치(-21.4), 삼치(-11.9), 오징어(-34.4), 미역(-20.9)

자료: “2009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농촌경제연구원)

○ '09.7.21일까지(잠정) 23억불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하였으나 2009년 53억불 수출은 달성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하반기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상존
 - 긍정적 요인: 중국·러시아 경기회복 전망, 검역협상을 통한 수출 가능 품목 확대, 참치 국제가격 상승 등
 - 부정적 요인: 환율하락, 유가상승, 주요국 경기침체 장기화

나. 정부의 농식품 수출목표

◇ 정부는 2012년까지 농식품 100억불 수출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농수산물식품 산업발전의 성장동력을 제시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08년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7대 정책과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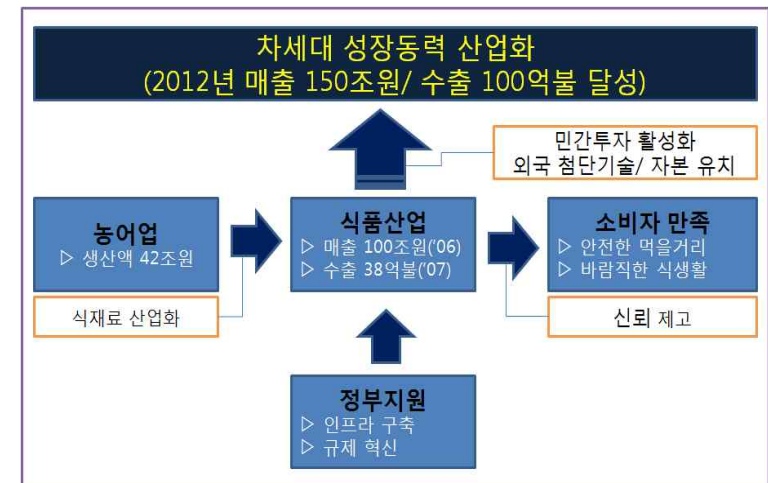
<표 12>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 주요내용

7대 정책과제	주요 내용
식품 R&D 투자 확대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식품기업 투자 활성화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지원	100억불 수출 달성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산업화	한식 세계화 달성
식재료 산업 활성화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농어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동반성장 도모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생산·공급	소비자 신뢰 제고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 정부는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에서 2012년까지 농식품 매출 150조원 수출, 100억불 목표 설정¹¹⁾

<그림 6> 정부의 농식품 수출 목표



자료: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농림수산물식품부)

11)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여 농식품 100억불 수출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생산유발액은 126억불, 부가가치 유발액 45억불 및 56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 2012년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매년 23%¹²⁾ 수출증가 필요

<표 13>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2008	2009(예측)	2010(예측)	2011(예측)	2012(예측)
농식품 수출	4,403	5,300	6,519	8,018	9,863

주: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로 추정하였으며 세계 경기 위축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성장에 맞춘 전망치

- '08년 9월말 기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30.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와 정부정책 여하에 따라 향후 연 23%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전략

- 주력수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
- 일본·중국·미국·러시아·아세안 등 우리나라 5대 농식품 수출시장의 수입규모는 2,947억불('07)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9%에 불과
 - 5대 농식품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을 3% 수준만 유지하여도 1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음
 -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한·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시장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출기회는 훨씬 커질 것임
-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농수산물 중심의 수출 정책을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
- 농식품 제2위 수입국인 일본시장(1위는 미국)을 분석해 보면 채소류, 화훼류, 가공식품, 수산물 등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12)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당시 22%였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본 연구에서 23%로 상향 조정하였음

수 있는 경합품목의 수입이 100억불에 달함

- 일본의 경합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이미지가 높아진 중국 동남아 등을 개척하여 시장다변화를 유도하면 100억불 수출시장을 찾을 수 있음

- 영세한 수출 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해 나가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강화

- 농림수산물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9년도 농식품 수출선도 조직” 육성사업 대상자로 13개 사업자를 확정·발표

<표 14> 품목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품목	수출선도조직
파프리카(2)	농산무역, 러브파프(연합조직) ※ 러브파프 : 경남북 수출업체·농가 등 4개소가 연합
배(2) :	팜슨, 천안배원에협동조합(단지연대) ※ 천안배원협 :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수출단지연대
김치(2)	대상FNF, 한울
딸기(1)	울원코리아
새송이버섯(1)	머쉬엠(연합조직) ※ 머쉬엠 : 7개 버섯 수출업체·농가가 참여하여 설립
감귤(1)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단감(1)	모닝팜
백합(1)	대동농업협동조합
장미(1)	로즈피아(연합조직)
유자차(1)	한성푸드

자료: www.kati.net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은 농식품 수출업체 주도로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선택 등 재배단계부터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해외마케팅, 수출 등 전 과정을 일관 수행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선도하는 조직체로 내년도부터 신규로 도입·육성

-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품질 및 물류개선, 조직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됨

- 정부는 수출선도조직의 육성을 통해 수출업체 및 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2012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0개 조직 선정 계획을 상당폭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선도조직화를 통한 수출기반조성을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

□ 대표 수출품목을 정하고, 새로운 수출 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도 적극 발굴

<표 15> 품목별 수출목표 및 집중육성 품목 (단위: 백만불)

구분	07년	09년	12년	집중육성 대상품목
합계	3,760	5,300	10,000	
농식품	2,532	3,600	7,500	김치, 인삼, 파프리카, 배, 돼지고기, 유자차, 새송이·팽이버섯, 삼계탕, 화훼류, 단감
신선농식품	597	800	1,350	
가공농식품	1,935	2,800	6,150	
수산식품	1,228	1,700	2,600	참치, 김, 굴, 넙치, 전복, 오징어, 봉장어, 게살, 고등어 ,미역 등

자료: “2009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농촌경제연구원)

<표 16> 1억불 이상 수출품목 15개, 유망품목 30개육성

구분	품목
1억불 이상 품목	김치, 인삼, 파르피카, 돼지고기, 배, 면류, 주류, 과자류, 참치, 오징어, 김 등
유망품목	삼계탕, 버섯(새송이·팽이), 유제품, 천일염, 전복, 넙치, 굴 등

자료: “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농림수산식품부)

-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전체 수출의 65% 이상이 되도록 집중화

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국제 경쟁력을 노일 수 있음

- 이들 품목의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07년기준)은 인삼 11.6%, 파프리카 49%, 유자차 34%, 밤 19%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미만으로 수출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 해외진출 기업·한식당과 연계해 식재료와 가공식품 수출을 늘려가는 방안도 추진

- 정부는 해외한식당, 해외진출기업들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식재료 수출을 통해 2012년까지 35억 달러의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구상
- 한식세계화와 연계하여 공세적 시장개척을 추진한다면 100억불 수출을 앞당길 수 있음

2) 충남 농식품 수출

◆ **충남이 2010년 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100억불달성이 전제되어야 함**

- 농식품의 수출 증가를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쉽지 않으며 현재 정부가 신규시장개척과 공격적 지원을 통해 농식품의 수출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농식품 수출전망을 국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목표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충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됨

- 따라서 정부계획안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23% 수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에는 4.9억불의 수출 달성이 가능하며 2012년 7.5억불의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17>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년도	농식품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2004	116	32.2%
2005	122	
2006	156	
2007	303	
2008	355	
2009	400(예측)	23.0%
2010	492(예측)	
2011	605(예측)	
2012	744(예측)	

주: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로 추정하였으며 세계 경기 위축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성장에 맞춘 전망치

○ 충남의 2004~2008년 연평균 농식품 수출 증가율이 32.2%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 5억불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2010년 5억불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의 농식품 수출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충남도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조직화 · 규모화 촉진, 고품질 · 안전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주력 수출품목 집중 육성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해외시장별 특성 및 차별화 마케팅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충남의 1,2위 수출품목인 인삼과 배가 정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집중육성 품목이고 충남의 농식품 1위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은 5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호조**

○ 아울러 정부의 집중육성품목에 포함되어있는 인삼과 배가 충남의 1,2위 수출 품목이며 충남의 1위 농식품 수출국인 중국의 고성장

(9.8%)이 예상되는 점은 수출 달성에 호조로 작용

- 그러나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환율하락, 유가상승, 수출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 위험요소도 상존

<표 18> 2008 충남 수출 상위품목 현황 (단위 : 천불)

품 목	수출액	품 목	수출액	품 목	수출액
1. 홍삼제품	72,015	8. 스낵류	13,390	15. 인삼가공품	6,950
2. 배	37,207	9. 오리털	12,018	16. 분유	5,107
3. 과일·쌀음료	23,505	10. 조미김	11,023	17. 양념류	4,863
4. 고추장, 장류	19,821	11. 식품첨가물	8,569	18. 김치	4,070
5. 수산 가공품	15,379	12. 냉면등 면류	8,127	19. 두유	3,596
6. 밤	15,098	13. 유아차	8,109	20. 표고버섯	2,505
7. 심비디움	14,170	14. 콩기름	7,436	21. 껌	1,842

자료: 충남 내부자료

<표 19> 충남의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합 계	중 국	미 국	일 본	동남아	기타 (유럽등)
2008년	355	84	82	58	91	40
2007년	303	85	71	63	57	27

※ '08 주요 수출국가 비중 : 중국 24%, 미국 23%, 일본 16% 順

◆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충남도의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 필요**

- 농식품부는 국민 소득 3만불 달성과 선진국 진입이 가시화되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중장기 농정대책인 “2020 농정vision”을 ’09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 충남도는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시장개방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 등에 대비해 「2020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단·장기 종합대책(안)」을 마련
 - ▲단기적으로 2011년까지 농업·농촌·복지·문화·의료 등 14개 부문

524개 사업에 5조 4,086억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농업·농촌·복지부문 648개 사업에 19조 3,250억원을 투입

3) 충남의 농식품 2020 전망

◆ 2012년까지 23% 성장 후 10%대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가. 국내 농식품 2020전망

○ 산업연구원에서 추정한 농식품 증가율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전망해보면 고성장하에서 110억불, 기준성장하에서 99억불, 저성장하에서 87억불의 수출 달성이 가능

○ 그러나 정부는 농식품 집중육성을 통해 2020년 200억불 수출을 목표로
<표 20> 경상수출 증가율 (단위: %)

	부문	2005~2010	2011~2015	2016~2020
고성장	농산물	8.4	7.7	6.2
	축산물	7.4	7.1	6.0
	임산물	6.8	6.3	4.1
	수산물	6.5	6.7	4.4
기준성장	농산물	7.9	6.6	5.0
	축산물	6.8	5.9	4.7
	임산물	6.2	5.1	2.8
	수산물	6.0	5.6	3.2
저성장	농산물	6.5	4.6	4.6
	축산물	5.4	4.9	4.4
	임산물	4.8	3.1	2.5
	수산물	4.6	3.6	2.8

자료: “한국산업 2020”(산업연구원) 재편집

<표 2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년도	정부안	고성장	기준성장	저성장
2008	4,403	4,403	4,403	4,403
2009	5,300	5,300	5,300	5,300
2010	6,508	5,732	5,704	5,630
2011	7,991	6,165	6,072	5,880
2012	9,812	6,631	6,463	6,141
2013	10,713	7,132	6,879	6,414
2014	11,698	7,671	7,322	6,699
2015	12,778	8,250	7,794	6,996
2016	13,959	8,752	8,173	7,310
2017	15,253	9,285	8,571	7,638
2018	16,670	9,850	8,989	7,981
2019	18,222	10,450	9,427	8,339
2020	19,923	11,087	9,886	8,714

주: 정부안은 '12년까지 23%성장후 '20년까지 10%성장

주: 보다 정확한 예측치는 중장기 농정대책인 “2020 농정vision” 보고서 이후 작성가능

나. 충남 농식품 2020전망

○ 고성장하에서 충남은 2020년경 8.4억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성장하에서는 7.5억불 수출이 전망됨

○ 그러나 정부가 농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100억불, 2020년까지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목표설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목표인 2012년 100억불, 2020년 2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23%, 2020년까지 매년 10%정도 수출이 증가해야 하며 충남 또한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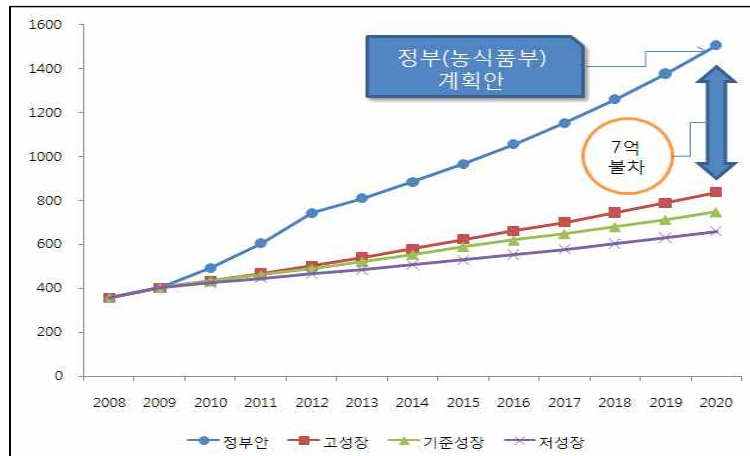
<표 22>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년도	정부안	고성장	기준성장	저성장
2008	355	355	355	355
2009	400	400	400	400
2010	491	433	431	425
2011	603	465	458	444
2012	741	500	488	463
2013	809	538	519	484
2014	883	579	553	506
2015	964	623	588	528
2016	1054	661	617	552
2017	1151	701	647	576
2018	1258	743	678	602
2019	1375	789	711	629
2020	1504	837	746	658

주: 정부안은 '12년까지 23%성장후 '20년까지 10%성장

주: 보다 정확한 예측치는 중장기 농정대책인 "2020 농정Vision" 보고서 이후 작성가능

<그림 7>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그림 8> 충남의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불)



- 다만 고성장하에서의 수출과 정부목표와는 7억불의 격차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충남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극복한다면 2020년 15억불 농식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외자유치

1) 국내 외자유치 전망

가. 세계투자동향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은 부정적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1/4분기까지 세계 총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세계투자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음¹³⁾

- UNCTAD¹⁴⁾(2009)에 따르면 세계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4/4분기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4%까지 감소하였고 특히 M&A형 투자의 감소폭이 더욱 커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7%까지 급감
- OECD(2009)에서도 OECD 17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가 2009년 1/4분기에 가속화되어 2008년 4/4분기 대비 5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하락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5,000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경간 M&A 투자는 2009년 상반기 OECD 회원국의 경우 2007년 대비 60%까지 감소하였음
- 불경기로 인한 시장기대 심리 악화, 신용/대출 기준 강화, 주식시장 쇠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자산투자(equity investment) 보다는 파트너십이나 라이선싱과 같은 비자산 진입 모드(non-equity entry mode)에 보다 의존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UNCTAD의 “World Investment Prospect Survey 2009~2011”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2/3가 2009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출 비용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10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6.7% 증가할 전망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1조7000억 달러(약 2050조원)로 2007년 1조9700억달러(약 2375조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예상치는 1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13)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요약 및 발췌

14)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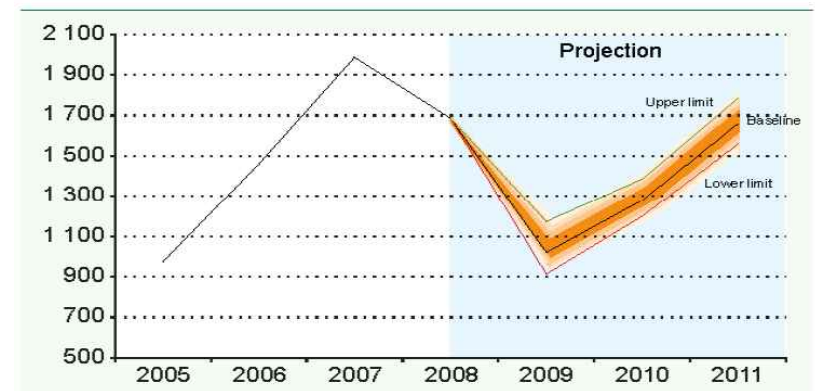
- 그러나 UNCTD는 내년 외국인직접투자가 1조4000억 달러로 회복하고, 2011년에는 1조8000억 달러 수준으로 뛴 것으로 전망
- 201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16.7% 증가할 전망

<표 23>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 (단위: 억달러,%)

	2006	2007	2008	2009 (예측)	2010 (예측)	2011 (예측)
외국인직접투자	14,600	19,700	16,900	12,000	14,000	18,000
증가율		34.9	-14.2	-29.0	16.7	28.6

자료: UNCTD 2009 세계투자 보고서

<그림 9>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전망 (단위: 억달러)



자료: UNCTD 2009 세계투자 보고서

나. 국내 외국인투자 동향

◆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09년 목표인 125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07년 105억불, '08년 117억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 '08년 기준 국가별로는 EU지역에서의 투자가 가장 많았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투자가 가장 많았음

<표 24>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국가별)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협력기구	-	-	-	-	-	-	-	-
미주지역	653	3,107	659	1,938	671	3,197	628	1,904
아주지역	2,232	3,508	1,759	4,003	2,011	2,335	2,158	3,281
EU(25개 국가)	449	4,780	405	4,977	495	4,332	443	6,333
기타지역	371	168	275	314	382	646	515	187
합 계	3,705	11,562	3,098	11,233	3,559	10,509	3,744	11,705

자료: “주요경제통상 통계”(외교통상부)

<표 25>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산업별)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10	3	10	2	11	3	16	1
제 조 업	746	3,075	706	4,229	684	2,688	601	3,002
서비스업	2,856	8,301	2,337	6,636	2,802	7,612	3,067	8,387
전기·가스·수도·건설	54	184	45	366	62	207	60	316
합 계	3,666	11,562	3,098	11,233	3,559	10,509	3,744	11,705

자료: “주요경제통상 통계”(외교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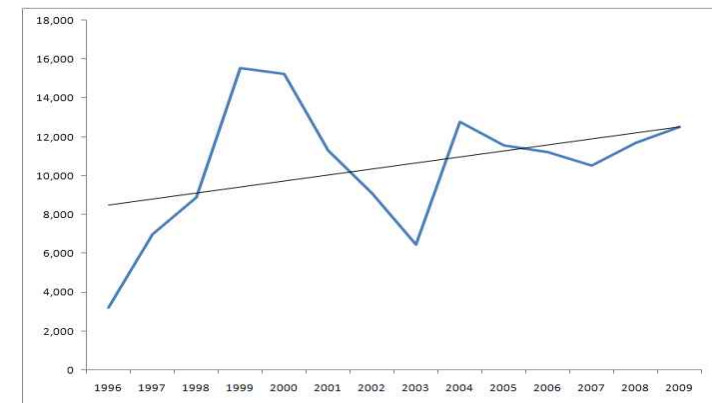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동향은 '03년 반등 이후 크게 증가하다가 '05년부터 유입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지난해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등으로 증가세로 반전

<표 26>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불, %)

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1996	3,204	
1997	6,971	117.6
1998	8,858	27.1
1999	15,545	75.5
2000	15,256	-1.9
2001	11,286	-26.0
2002	9,093	-19.4
2003	6,469	-28.9
2004	12,786	97.7
2005	11,563	-9.6
2006	11,233	-2.9
2007	10,509	-6.4
2008	11,705	11.4
2009	12,500(예측치)	6.8(예측치)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그림 10>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불)



- 우리나라의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투자유치 규제개혁, 인센티브 및 추진체계 개선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년 목표인 125억불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200억불 달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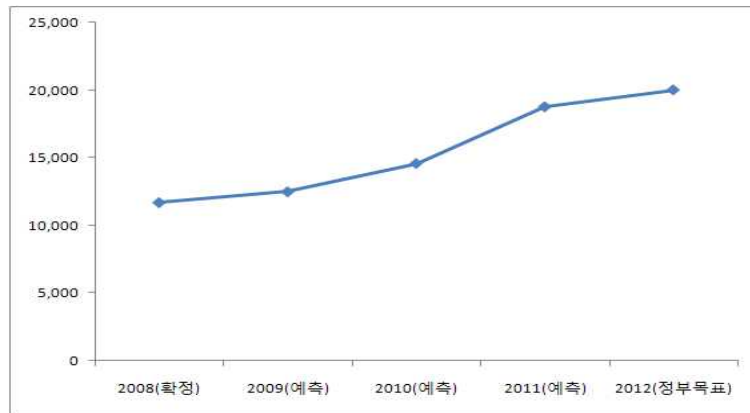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예측을 통해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예측해보면 2011년 187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¹⁵⁾
-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08년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 유입되는 환경 조성으로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 200억불 달성을 추진

<표 27>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 (단위: 백만불)

	2008(확정)	2009(예측)	2010(예측)	2011(예측)	2012(정부안)
직접투자	11,705	12,500	14,588	18,760	20,000

자료: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으로 재추정(기준점 2009년)

<그림 11>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2) 충남의 외자유치 전망

- 15)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외 경기와 상당관계가 있고, 주변국의 투자유치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임

가. 산업단지현황

- '09년 2/4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77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일부 조성 중에 있음

<표 28> 전국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단위 : 개, 천㎡, %)

단지유형	단지수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36	250,491	228,111	226,020	2,091	99.1
일 반	341	237,318	119,619	114,878	4,741	96.0
도시첨단	6	376	67	67	-	100.0
농 공	391	48,724	43,091	42,383	708	98.4
계	774	536,909	390,888	383,348	7,540	98.1

주: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 외국인투자를 위한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9>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형) (단위 : 천㎡, %)

구분	단지명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합 계	총6개	3,516	3,117	2,612	505	83.8
강 원	동해자유무역	135	-	-	-	-
전 북	군산자유무역	1,082	1,082	583	499	53.9
	익산자유무역	298	298	295	3	99.0
전 남	대불자유무역	1,033	1,033	1,030	3	99.7
	울촌자유무역	264	-	-	-	-
경 남	마산자유무역	704	704	704	-	100.0

주: 자유무역지역 현황은 산업단지형에 한함(항만형, 공항형은 제외)

주: 분양(임대)대상은 산업용지 중 조성된 면적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표 30>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단위 : 천㎡, %)

구분	단지명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합 계	13개	7,871	7,201	6,410	791	89.0
부 산	지사외국인	298	298	293	5	98.3
대 구	달성외국인	104	104	25	79	24.0
광 주	평동외국인	959	959	933	26	97.3
경 기	문산첨단(당동지구)외국인	239	239	239	-	100.0
	장안첨단1외국인	443	443	443	-	100.0
	장안첨단2외국인	380	164	164	-	100.0
충 북	오송외국인	302	-	-	-	-
	오창외국인	806	806	674	132	83.6
충 남	인주외국인	160	160	127	33	79.4
	천안외국인	491	491	491	-	100.0
전 남	대불외국인	1,614	1,614	1,602	12	99.3
경 북	구미외국인	1,579	1,427	1,127	300	79.0
경 남	사천외국인	496	496	292	204	58.9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 농공단지를 제외한 충남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비율은 11.0%로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편

<표 31> 지역별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09년 2사분기기준)

	단지수	비율
전국	383	100
서울	3	0.8
부산	15	3.9
인천	9	2.3
대구	11	2.9
광주	7	1.8
대전	3	0.8
울산	11	2.9
경기	95	24.8
강원	18	4.7
충북	39	10.2
충남	42	11.0
전북	21	5.5
전남	29	7.6
경북	41	10.7
경남	42	11.0
제주	1	0.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 아울러 충남은 외국투자 기업인들의 선호에 맞춘 외투자지역 지정 추진 계획의 수정 보완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투자유치기반 마련

<표 32> 충남 외국인 투자지역확보 추진계획 (단위 : 천㎡(천평), 억원)

단 지 명	면 적	소요 예산	입주 시기	주 요 유 치 업 종
계	751(227)	1,956		
아산 테크노밸리	70(21)	152	2009	디스플레이
천안 3산업단지	155(47)	704	2009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신재생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493(149)	1,000	2011	전자 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충남테크노파크	33(10)	100	2009	R&D 및 제조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나. 충남의 외자유치 전망

◆ 세계투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충남이 외국인투자지역 확충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2010년 15억불 유치 가능

-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추세를 통한 예측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3년간(2006~2008)의 투자유치 비중의 평균을 통해 충남의 유치 가능액을 추정하고자 함¹⁶⁾

<표 33>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 (단위 : 백만불)

	2006	2007	2008	2009. 10현재
직접투자	1,372	299	1,921	1,541

자료: 충남 내부자료

- 충남은 '06년~08년도 평균 전국대비 10.5%의 투자유치실적을 올렸으며 향후에도 이 정도의 투자유치실적을 가정한다면 '10년 15억불, '11년 20억불, '12년 21억불 달성이 가능

<표 34> 충남외국인직접 투자유치 목표 (단위:백만불)

	2009(예측)	2010(예측)	2011(예측)	2012(정부안)
직접투자	1,313	1,532	1,970	2,100

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목표 대비 10.5% 수준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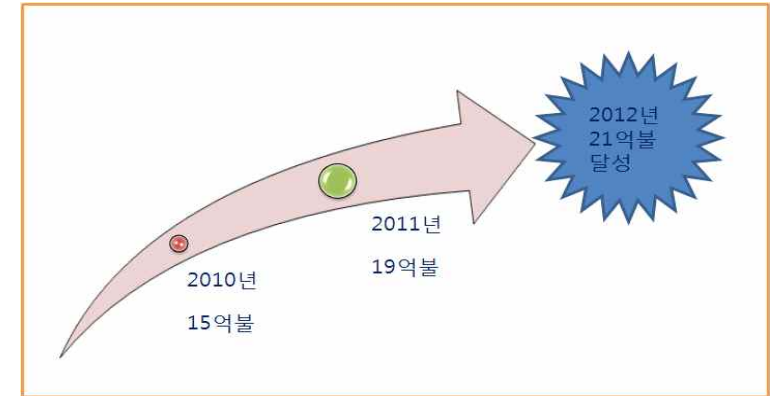
- 2009년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충남도의 적극적 유치노력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09년 10월 현재

16) 투자유치액을 결정하는 변수는 다양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연구주제로 남김

15.4억불을 유치하여 이미 2009년 목표치인 13억불을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15억불까지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

<그림 12> 충남의 외자유치 전망

(단위: 백만불)



- 아울러 세계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11년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UNCTAD가 밝힌 만큼 2012년 21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유치지역 순위에서 배제되고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뽑힌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도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필요한 만큼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 UNCTAD는 241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인 '2009~2011년 세계 투자 전망'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감소세를 이어온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0년부터 차츰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2011년엔 완전한 증가세를 되찾아 규모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이번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뽑은 ‘가장 매력적인 외국인직접 투자 대상 국가 베스트 15’에선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미국과 인도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브라질과 러시아 순
- 서유럽 국가 중에선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순위에 올랐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순위에 포함

- 우리나라는 이번 순위에서도 제외되었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인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15억불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글로벌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중국, 인도 등 경쟁국의 적극적 투자유치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투자기반과 다양한 유치전략의 구상,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이 사후관리 및 차별화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고 외국 소유지분에 대한 적대적 정서와 낮은 기업 투명성, 호전적인 노동 조합 등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충남이 '12년 외자유치 21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 전략산업 및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함**

- 전산업 영역에서 녹색성장,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중점유치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되는 유치전략을 수립

※ 해외 주요국은 산업고도화·지역개발·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연계된 FDI 유치로 전환

- * 스위스는 바이오산업, 대만은 지식기반R&D센터, 영국은 창조산업(영화, 미디어 등), 에너지, 금융서비스, ICT, 생명공학 등 5개 분야의 중점유치 전략 추진

-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전략 필요

-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4대 도 핵심 산업과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축으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관광·레저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유치에 노력해야함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제조분야 외국인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향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관심 필요

-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의 72%에 달해 앞으로 서비스업 유치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5> 우리나라 산업별 외국인 투자 비중 (단위: 백만불)

구 분	2008	
	금액	비중(%)
농·축·수산·광업	1	0.0
제 조 업	3,002	25.6
서비스업	8,387	71.7
전기가스수도·건설	316	2.7
합 계	11,705	100

자료: 2009 외국인 투자동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편집

4. 기업유치

◆ **민선 4기 목표(기업유치 1,000개)의 273%를 이미 달성한 만큼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전환**

- 국내기업유치는 국내의 경기상황도 중요하지만 충남도 차원에서의

유치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국내기업유치는 국내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성장 및 기업의 설비투자과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 3.9% 성장이 예상되고

- 2009년 설비투자는 경기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인해 2008년 대비 12.3% 감소할 전망이나 201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8.2% 증가할 전망
- 따라서 2010년 충남의 국내기업유치환경은 2009년에 비해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여겨지나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하고 있음

<표 36> 충남의 국내기업 유치현황 (단위 : 개소수/명/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말
업 체 수	307	1,004	855	567
고용인원	45,361	196,580	46,220	11,372
투 자 액	60,001	193,010	147,132	10,085

○ 충남은 2009년 9월말 현재 567개 기업을 유치하여 2009년 500개 유치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 누적 2,733개 기업을 유치하여 민선 4기 목표(1,000개)의 273%를 달성
 - ※ 매출효과 41조 228억원으로 매년 4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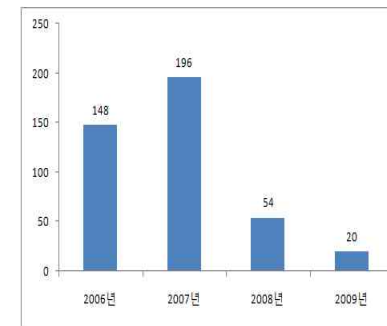
○ 그러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과 투자액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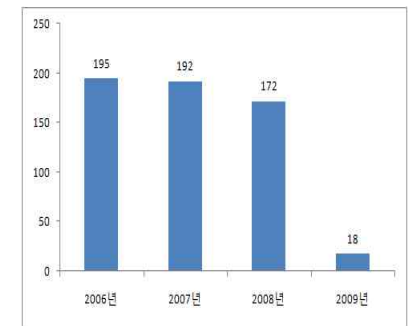
<표 37> 충남의 업체당 고용인원 및 투자액 (단위 : 명/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업체당 고용인원	148	196	54	20
업체당 투자액	195	192	172	18

<그림 13> 업체당 고용인원 (단위: 명)



<그림 14> 업체당 투자액 (단위: 억)



- 2006년 업체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148명, 195억이었으나 2009년 업체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20명, 18억으로 유치기업의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기업 500개라는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유치기업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충남도는 2010년 기업유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 기업이전은 산업의 연관관계가 주요 고려대상이며 따라서 지역의 관련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
 -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유치 전략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입지조건을 특화시키는 정책 추진 필요

- 충남의 기업유치 전망을 살펴보면 충남의 산업단지현황과 지역별 기업유치 현황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V. 결론 및 요약

◆ 충남의 수출

- 2010년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로 충남은 수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우리나라 수출은 12.2%~15.0%의 두 자릿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2008년 충남의 수출액을 기준으로 충남의 수출 전망을 예측해보면 2010년 406억불 ~ 421억불 달성이 예상
 - 충남의 수출 1위와 2위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이며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충남수출에 있어 호조
 - 충남의 주요수출국은 중국, 홍콩, 미국, 멕시코, 일본 순이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6%로 매우 높아 중국의 경제회복이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충남은 2000년~200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2%를 유지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경제성장을 둔화와 세계시장에서 신흥개도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기준성장하(6% 성장)에서 충남은 2015년경 560억불, 2020년경 750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7% 성장)에서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930억불 수출당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충남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전자 등은 세계시장에서 기술, 가격, 브랜드 인지도 면에 있어 당분간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충남의 수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

- 충남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은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전망
 - 다만 대기업 수출비중 높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충남의 농식품 수출

- 정부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식품 산업발전의 성장동력을 제시
 - 농림식품부는 매년 23%의 수출증가를 통해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수립
- 충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됨
 - 따라서 2009년부터 매년 23% 수출이 증가(충남의 2004~2008년 연평균 농식품 수출 증가율은 32.2%)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에는 4.9억불의 수출 달성이 가능하며 2012년 7.4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충남의 1,2위 수출품목인 인삼과 배가 정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집중육성 품목이며 충남의 농식품 1위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도 2010년 5억불 달성에 호조
- 2012년까지 23% 성장 후 10%대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정부목표인 2012년 100억불, 2020년 2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23%, 2020년까지 매년 10%정도 수출이 증가해야 하며 충남 또한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경 15억불 수출달성이 가

능할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충남이 2010년 5억불, 2020년 1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100억불달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연평균 수출증가율 2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충남도의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 필요

◆ 충남의 외자유치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예상치는 1조 20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10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16.7%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09년 목표인 125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 추세를 통해 예측해보면 2010년 15억불, 2012년에는 21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충남도의 적극적 유치노력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09년 9월 현재 15.4억불을 유치하여 이미 2009년 목표치인 13억불을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15억 불까지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
- 아울러 세계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11년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밝힌 만큼 2012년 21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충남이 '12년 외자유치 21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산업

및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함

-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
 - UNCTAD가 241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매력적 투자유치지역 순위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남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와의 치열한 유치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 충남의 기업유치

- 충남은 2009년 9월말 현재 민선4기 목표의 273%를 달성하였으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과 투자액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 2006년 유치기업 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148명, 195억이었으나 2009년 유치기업 당 고용인원과 투자액은 각각 20명, 18억으로 유치기업의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음
 - 따라서 유치기업의 수보다 먼저 유치기업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
 - 충남도는 2010년 기업유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 기업이전은 산업의 연관관계가 주요 고려대상이며 따라서 지역의 관련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유치 전략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입지조건을 특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충남이 추진하는 목표치는 예측 가능한 국내외 여건 하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예기치 않은 충격이나 정부의 정책변화 및 충남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자료>

김흥종 외,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대외
경제정책연구원(2007)
성태규 외,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2006)
조영수 외,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최용재 외,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 산업연구원(2008)
황인성,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2009)
“08년 농식품 수출 17.2% 증가한 44억 달러”(보도자료), 농림수산
식품부(2009)

“2009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KOTRA(2009)
“2009년 외국인투자유치 환경분석 및 전망”, KOTRA(2008)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2009)
“2011년까지 세계 외국인투자 전망 및 시사점 ”, 주영국대사관(2007)
“녹색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중점유치대상 선정 추진”(보도자료), 지식
경제부(2009)
“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육성”(보도자료), 농림수산
식품부(2008)
“농업전망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보도자료), 지식경제부
(2009)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강국 실현 전략”(무역투자진흥
회의자료), 지식경제부 외(2008)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농림수산식품부(2008)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과제”(보도자료), 한국은행(2008)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시행”(보도자료), 지식경제부(2009)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이제는 바뀌어야”(보도자료), 지식경제부(2009)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강화”(보도자료), 지식
경제부(2009)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주요 경제통상 통계”, 외교통상부(2009)
“충남 2020 비전과 전략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2009)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산업연구원(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UNCTAD(2009)